

율곡 · 우계 사칠논쟁의 세 가지 비유 고찰

『율곡과 우계의 사칠논쟁 왕복서』 중 율곡과 우계의 4서를 중심으로

이보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 들어가며

한국 철학사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사단칠정논쟁만큼이나 사소하게 시작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사건도 드물 것이다. 이는 갓 과거 시험에 급제한 고봉이란 관리가,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퇴계가 수정한 정지운의 천명도설 구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이를테면 과거 시험 문제집에 정정표기를 요청한 작은 사건에서 발발한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은 서로가 합치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13년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후기 학자들에게까지 이어져 한국 고유의 성리학을 낳을 만큼이나 한국철학사의 큰 획을 그은 일대의 사건이다. 하지만 단순히 당대 저명한 성리학자, 한국의 철학자들의 논의주제였다는 점에서만 사칠논쟁이 의의를 지니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수양의 태도를 결정하려는 도덕적 함의를 지니고 있었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학자이자 정치가인 그들에게 정치권력의 기반이자 그 방향성의 기저에 근거한 이론이었기에 논쟁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함의를 갖는 사칠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퇴계 · 고봉의 구도를 이어받은 후대 학자들이었던, 우계와 율곡의 사칠 및 심성논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쟁에서 처음에는 ‘기와리가 서로 각각 발현한다’고 생각한 우계가 퇴계의 리기이원(理氣二元)론, 주리(主理)설, 칠대사(七對四)를 계승한다면, 실질적으로 ‘기가 발하

여 리가 올라탄다'만 인정하는 율곡은 리기일원(理氣一元)론, 주기(主氣)설, 칠포사(七包四)라는¹⁾ 기대승의 논지를 한 층 발전시켜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논쟁에서 주목할 점은 논지를 전개시키는데 있어 비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계 4서에서 언급된 '인승마(人乘馬)'비유를 시작으로 율곡 4서에서 '물과 그릇의 비유'가 크게 활용되고, 추가적으로 우계의 '버드나무 물가'의 비유가 사철 및 인성 논쟁에서의 그들의 입장을 리기론을 통해 풀어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본고는 그들의 비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비유는 논리적으로 한계를 지닌 장치이지만, 자신의 입장을 요약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향준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수사학으로서의 은유'를 넘어서는 '개념적 은유'의 경우 철학이론의 구성화하는데 그리고 그런 구성화의 약점과 장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평가하고 비평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커베체쉬의 '은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견해'와도 맞아맞는 의견이며 이러한 이해를 받아들일 경우 은유는 인간의 사고와 추론의 불가피한 과정으로서 자리 잡는다. 이것은 곧 우리가 철학 저술의 담론을 이해했다고 말한다면, 불가피한 사고의 과정으로서 은유적 사고 구조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

그러나 은유에 대한 이해가 철학적 담론에 있어 지니는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성리학 담론에 있어 사용된 여러 은유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향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몇 성리학의 담론들이 은유적 사고의 구성물이라고 가정'³⁾하여 '인승마 비유'와 '물과 그릇의 비유'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또한 주리 및 주기의 담론에 있어서만 이를 한정하였고 이 또한 기존의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1) 김세곤, 『퇴계와 고봉, 소통하다』, 온새미로, 2012, p.125.

2) 이향준, 『조선의 유학자들, 켄타우로스를 상상하며 이와 기를 논하다』, 예문서원, 2011, p.11.

3) 위의 책, p.12.

그러므로 본고는 가장 그들의 주장이 돋보인다고 판단된 ‘우계·율곡 4서’에 한정하여 3가지 비유를 토대로 그들의 입장 차와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승마 비유’ 및 ‘물과 그릇의 비유’를 사단과 칠정 및 인심과 도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비유라고 판단되는 ‘버드나무 물가 비유’를, 두 학자가 지닌 ‘리기론’의 층위적 차이에 입각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인승마 비유’를 중심으로

2.1. 우계가 비튼 퇴계의 호발설 - 주재성은 둘이나 뿌리를 하나다

우계4서에서 우계는 자신이 호발설을 따르게 된 연유를 설명한다. 그의 첫 입장은 리기호발설에 대해 옳지 않다는 것이었으나, 인심·도심설을 읽고는 “혹 형기에서 생겨나고 혹 성명에서 근원한다”라는 주자의 말을 통해 퇴계의 호발설을 따르고자 하게 되었다는 것이 요지이다.⁴⁾ 즉, 율곡의 비판에도 리와 기가 호발한다는 본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런 바탕 하에 다음과 같이 리, 기에 대한 비유를 덧붙여, 퇴계의 호발설을 새롭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인다.

옛날 사람은 사람이 말을 타고 드나드는 것으로써 리(理)가 기(氣)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참으로 적절합니다. 대개 사람은 말이 아니면 드나들지 아니하며 말은 사람이 아니면 일정한 길을 잃게 되니 사람과 말은 상수하여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a)그렇다면 사람과 말이 문을 나설 때, 반드시 사람이 말을 원하면 말은 사람을 태우는데, 이것은 바로 리(理)가 기(氣)의 주재이며 기는 그 리(理)를 태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b-1) 문을 나설

4) 황준연 외, 『역주 사단칠정논쟁』, 學古房, 2009, p.288.

때 사람과 말이 일정한 길을 따르는 것은, 기(氣)가 리(理)를 따라서 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b-2) 사람이 비록 말을 타더라도 말이 제멋대로 달려 일정한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기가 날아오르고 빨리 달려 혹 지나치기도 하고 혹 미치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리(理)·기(氣)가 유행하여 성실의 조짐과 악의 조짐이 나뉘어지게 된 까닭을 추구해본다면 어찌 명백하고 곧게 자른 듯 하지 않겠습니까?)⁵⁾ (우계 4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계는 사람과 말을 가지고 리와 기에 비유하면서 그 ‘주재’와 ‘타는 바’의 관계를 통하여 그 관계가 분명해진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리와 기를 가지고 선과 악의 조짐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 퇴계의 호발설 지지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a)에서처럼 리가 기의 주재가 되어 기를 타는 것을 통해, ‘리발기수지(理發氣隨之)’인 퇴계의 설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b-1, b-2)에서는 말이 사람을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두 경우로 나누면서 퇴계의 ‘기발리승지(氣發理乘之)’를 설명한다. 즉, (b-1)과 같이 사람과 말이 일정한 길을 따르는 것 즉, 기가 리를 따라서 발하는 것을 ‘선’으로 보면서, 동시에 (b-2)와 같이 ‘사람이 비록 말을 타더라도 말이 제멋대로 달’리는 것을 기가 리를 따라 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악’으로 본 것이다. 이를 통해 퇴계가 고봉과의 사단칠정논쟁에서 결론에 이르렀던 ‘리발기수지 기발리승지’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그의 비유에서 ‘리는 사람이고, 기는 말’이기에 말이 주재가 되어 사람과 말이 가는지, 사람이 주재가 되어 사람과 말이 가는지가 나뉜다는 점도 퇴계의 입장을 계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단(四端)·칠정(七情)이 ‘리발’과 ‘기발’에서 근거함은 퇴계의 호발설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 (a)에서 사람과 말이 문을 ‘나설 때’라는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b-1)과 (b-2)에서는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 논한 것을 보아, (a)는 단지 ‘리발기수(理發氣隨)’만을 설명한 것이며 발한 후를 설

5) 위의 책, p.289.

명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에서 말이 나설 때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사람이 주재할 경우 말이 길을 따라갈 것임은 우계가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였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사단은 말하지 않아도 선택이 당연한 것이었던 반면, 칠정은 선·악이 있으므로 ‘말이 길을 따르는지’의 여부를 이야기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b-1)이 칠정 중 선택 부분이며, (b-2)가 칠정 중 악한 부분을 상징할 수 있다. 단지 (a)가 미발 시 리와 기가 함께 있는 상태를 논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퇴계의 호발설을 옳다고 보았던 우계의 입장에서, 이 비유가 효과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계가 궁극적으로 호발설을 주장하고자 한다는 점과 그렇기에 사단은 언급하지 않아도 선택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a)는 리가 주재하고 있는 사단이라고 비유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우계가 퇴계의 호발설을 지지한다고 전제한 바와는 달라지는 지점이 비유에 녹아있다는 것이다. 본 비유에서 ‘문을 나서기 전’은 ‘말하기 전’을 의미하며, ‘문을 나섬’은 ‘발함’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계는 ‘문을 나설 때’ 주리와 주기가 나뉜다고 보고 있다. 발할 시점에 리가 주재하느냐, 기가 주재하느냐를 통해서 리발과 기발을 나눈 것이다. 퇴계는 감정의 질적 차이를 가져오는, 리와 기라는 시작부터 다른 두 뿌리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우계는 서로 나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발할 시점’에, 주재하는 바에 따라 ‘주리’와 ‘주기’로서 상대적으로 나뉘는 관점을 택했던 것이다. 우계의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람이 리(理)를 살피는 것은 이발(已發) 후에 선택이 나뉘어지게 된 것을 통해서인데, 이것을 지칭해서 “이같이 성이 발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이같이 기가 가지런하지 않아 악으로 흐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단지 처음 움직일 때에 곧 주리와 주기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이기가 호발하여 각기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리를 보

고, 기를 볼 때에, 각기 자기가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추구해보면, 우리 형의 가르침과 어그러지지 않으니 어떠합니까?⁶⁾ (우계 4서)

분명 퇴계의 근본 입장과는 미묘하게 다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재에 따라 리발과 기발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호발이지만, 그것은 ‘발한 후’에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이 리를 살피는 것은 (이미) 발한 후에야 선악이 나뉘게 된 것을 통해서’이고 그를 통해 선과 악을 귀인함에 있어 주리와 주기가 발생한다고 그는 말한다. 즉, 주재하는 바에 따라 ‘주리’와 ‘주기’가 있지만 그것은 발하고 나서 결정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리, 기가 호발하여 각기 일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리는 사람이고, 기는 말’이라고 전제했기에, 길을 가게 된 이유(감정이 발한 이유)가 사람(리)인지 말(기)인지에 따라 나뉜다고만 했을 경우 퇴계의 설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계는 오히려 ‘처음 발할 때’에야 주재하는 바가 결정된다고 말함으로써, 발하기 이전에 리와 기를 구별 짓지는 않는다. 이는 ‘소종래’에 대해서는 퇴계의 입장이 아닌 율곡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퇴계의 호발설을 수정하여 율곡의 관점과 합치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졌던 것이다.

2.2. 우계의 모순, 율곡의 인심·도심을 비판하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만한 점은 그가 ‘사람이 말을 타고 드나드는 비유’를 리와 기에는 적용하지만, 인심과 도심에는 적용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이다.

주자의 설은 “혹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기고 혹 성명의 바름에서 근원한다”고 하였고, 진복계의 설은 “이 지각은 리(理)로부터 발한 것도 있고 기(氣)로부터 발한 것도 있다”고 했는데, 바로

6) 앞의 책, p.289.

퇴계의 호발설과 같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인심(人心), 도심(道心)도 또한 정이거늘 어째서 도심을 리발이라 하고 인심을 기발이라 합니까? 사람이 이러한 형기를 가짐에 있어서는 크게는 몸과 마음이며 작게는 온갖 뼈들로, 사물의 법칙을 갖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소리·색깔·냄새·맛에 대한 욕구도 또한 하늘의 이치에서 나온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 사람이 말을 타면 상수하여 가게 되는데, 이제 사람을 가리켜 도심이라 하고 말을 가리켜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심, 도심을 나누어서 말하는 것도 또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⁷⁾ (우계 4서)

겉으로만 보면 인심과 도심은 각각 기발, 리발로 나뉘어 성현의 말을 통해 분명한데, 그럴 경우 사람과 말의 비유에서 사람과 말이 언제나 함께 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묻는 것이다. 이전 비유의 설명에서 그가 기발과 리발을 사람과 말로 보지 않았기에 이 질문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그 질문이 사단과 칠정을 리발과 기발로 나누고, 도심과 인심을 이 틀에 맞추려는 자신의 논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율곡의 1~3서에서도 도심을 사람에, 인심을 말에 비유한 적이 없고, 율곡 4서에서만 설명이 나온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그러하다.

하지만 그 전까지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은 사실상 율곡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율곡은 ‘도심은 발할 때에 인의예지의 바름에서 곧게 나와서 형기가 가리우지 못한, 리에 의해 주관이 된 것이고, 인심은 천성에 바탕을 두었지만 발할 때에 귀와 눈과 사지의 사사로움으로 말미암고 천연의 본연이 아닌, 기에 의해 주관이 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⁸⁾ 그리고 칠정(율곡에게 있어 감정 전반)은 사단(율곡에게 있어 칠정 중 선한 부분)을 포함하지만, 인심과 도심은 감정에 ‘의’라는 조절작용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둘로 나뉜다고 주장한다. 칠정은 선·악이 포함되어 있고, 사단은 선이다. 그러나 인심은 악이고, 도심

7) 앞의 책, p.290.

8) 앞의 책, p.276.

은 선으로서,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와 그 구조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율곡은 사단은 도심을 전적으로 말한 것이고, 칠정은 인심과 도심을 합하여 말한 것이며, 인심은 주기이고, 도심은 주리라고⁹⁾ 설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율곡에게 있어 주기는 곧 악을 의미한다. 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곡에게 있어 인심은 곧 선이 아닌 부분이다.¹⁰⁾ 반면 우계는 사단·칠정이 리발·기발로 나뉠 수 있듯이, 감정으로서 도심과 인심도 그렇게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에 리에 근거한 도심은 선이지만, 기에 근거한 인심은 선일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도심의 선과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본다. 인심이 도심과 달라지는 이유는 그것이 몸에서 근거하는지의 여부에서 온다고 우계는 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람이 말을 타고 드나드는 비유’에서 리발과 기발을 도심과 인심에 적용하는 것을 우계가 꺼리는 것은, 되레 율곡이 지닌 구조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계는 주자와 진북계의 설에 의하면 도심은 리발이고 인심은 기발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율곡에 의하면, 도심은 선하고, 인심은 선한 부분 이외의 점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¹¹⁾ 그렇다면 ‘소리·색깔·냄새·맛에 대한 욕구도 하늘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고, 하늘의 이치는 본래 선한데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지 우계는 묻는 것이다. 우계도 인심이 악해질 수 있다고 보았지만, 초점을 ‘근거한 바가 몸인지 성명인지’에 둔 것이었기 때문에 인심·도심 개념에서 주로 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율곡과 달랐다.

우계4서에서 우계 주장의 근거로 언급되었듯이, 주자와 진북계의 설에 따르면 도심은 리발이고 인심은 기발이다. 또한 ‘욕구도 하늘의 이치에

9) 앞의 책, p.281.

10) 후에 언급하지만, 시작으로, 끝으로서의 인심·도심 모두에서 율곡은 그렇게 보는 것으로 보인다

11) 물론 우계와 마찬가지로 율곡도 도심이 몸에서 근거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언급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몸에서 근원해서 ‘인심이 결국 악으로 흐르게 된다’는 점이다.

서 나온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실상 선하지만, 우계가 생각하는 칠정에서 ‘기가 스스로 작용하는 때가 있어서’ 선·악이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인심에도 기가 스스로 작용하는 때에 따른 선·악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율곡의 전제에 따르면 인심은 선이 아닌 부분, 즉 악이어야 하므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 진북계의 인심·도심설(인심은 기발, 도심은 리발)에 율곡의 인심·도심에 대한 전제(도심은 선, 인심은 악)를 적용해서 비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모순이 발생한다. ‘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재하는 것)을 가리켜 ‘도심’이라 하고, ‘기’에 해당하는 말(이 주재하는 것)을 가리켜 ‘인심’이라고 하는 가운데, ‘사람이 말을 타면 서로 필요로 하여 가게 되므로’ (인심의 경우에도 말이 사람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인데), 율곡에 의하면 말이 언제나 사람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 율곡 관점대로 할 바에는 인심과 도심을 (형기에서 근원하는 바와 성명에서 근원하는 바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고 되묻기까지 했던 것이다.

2.3. 율곡의 인심·도심, 기질의 차등으로 답하다

율곡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사람이 말을 타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사람은 성이고 말은 기질인 것입니다. 말의 성질이 어떤 것은 유순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유순하지 않기도 한 것은 기품이 맑냐 흐리냐 순수냐나 섞였냐 하는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문을 나설 때에 혹 말이 사람의 뜻을 좇아서 나서는 경우도 있고, 혹 사람이 말의 다리를 밟고서(알지 못하고서 말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 사람의 뜻을 좇아서 나서는 것은 사람에게 말기는 것이기에 바로 도심(道心)인 것이며, 사람이 말의 다리만을 밟고서 나서는 것은 말에 말기는 것이기에 바로 인심(人心)인 것입니다. 문 앞의 길은 사물이 마땅히 다녀야 할 길인데, 사람이 말을 타고서 ‘아직’ 문을 나서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이 말의 다리를 밟을지 말이 사람의 뜻을 좇을지는 어느

것도 단서가 없으므로, 이것이 인심과 도심은 본래 ‘상대적인 근원이 없다’는 것입니다.¹²⁾ (율곡 4서)

율곡은 우선 ‘사람이 성이고 말은 기질’이라고 전제한다. 우계의 비유에서 사람이 리이고, 말이 기인 것을 율곡은 마음에 적용하여, 사람이 ‘성’이고, 말이 ‘기질’이라고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말이 사람이 뜻을 좇아서 나서는 것은 사람에게 말기는 것이기에 도심’이고, ‘사람이 말의 다리만을 믿고서 나서는 것은 말에게 말기는 것이기에 인심’이라고 말한다. 율곡은 ‘기발리승(氣發理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명의 뜻에 따라 기질이 발하는 것이 도심이고, 성명의 뜻 없이(뜻이 없으니 성명에 따를 필요 없는 상황에서) 기질이 발하는 것을 인심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문을 나서지 않았을 때는 어떤 단서도 없으므로, 즉, 미발 시에는 이 감정이 인심이 될지 도심이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상대적인 근원이 없다’고 말하여, ‘발해야만 주리와 주기가 생긴다’는 면에서 우계의 입장과 합치함을 보인다.

그런데 율곡은 인심이 곧 악이라고 주장한 바가 그르다는 우계의 주장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과 같이, 말로 비유된 기질에 따라 성인과 보통사람의 현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유하여 답한다.

성인의 혈기도 보통 사람들과 같을 따름이어서…성인도 인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말의 성질이 비록 극히 온순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혹 사람이 말의 다리만을 믿고서 문을 나설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다만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견제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바른 길을 따라가니, 이것이 곧 성인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를 지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인심도 또한 도심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보통 사람들은 기품이 순수하지 않아, 인심이 발할 때에 도심으로 그것을 주재하지 못하여, 흘러서 악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말의 다리만을 믿고서 문을 나서면서 또한 견제하지 않으면, 말이 제 뜻대로 걸어 바른 길을 따르지 않는 것

12) 앞의 책, p.300.

과 같습니다 … 인심이 주가 되고 도심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¹³⁾ (율곡 4서)

이를 통해 율곡은 인심은 말로 비유된 기질이 드러내는 호오의 성향대로 행위하려는 의식이며, 도심은 기질의 성향을 극복하고 본성의 리에 맞게 행위하려고 하는 의식임을¹⁴⁾ 설명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올바르게 기질역할을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심과 도심이 나뉘는 것이므로 결국 개인의 타고난 기질에 의해 인심인지 도심인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 것이라 주장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동시에 성인의 인심은 성인의 기질이 완전하게 순수하므로 도심이 되기 쉬우나, 보통사람들은 기질이 순수하지 않으므로 인심이 악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말하여, 인심이 모든 경우에 있어 악인 것만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악이 되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것은 우계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우계는 인심이 선 · 악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지만(물론 여기서 선은 도심의 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율곡은 인심이 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인데, 보통사람에 한정되었을 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보통사람이 도심이라는 의식으로 인심이라는 의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욕구도 하늘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라는 우계의 주장에, 성인은 그래서 인심이 곧 도심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전제로 두고 논의하는 보통사람의 경우 인심은 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성인의 칠정은 모두 사단일 수 있지만, 보통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듯이, 이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하는 형국과 같다. 사람이 말의 다리만을 믿고서 견제하지 않으면, 말이 제 뜻대로 걸어 바른 길을 따르지 않는 바와 같다고 비유로서 설명하고, 그 말은 사람의 뜻을 대개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둘의 인심에 대한 차이는 사람의 기질에 대한 관점 차라고 볼 수 있다.

13) 앞의 책, p.300.

14) 정원재, 『철학사상 vol.13』, 『이이의 본성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160.

울곡이 비유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인심이 주재가 되고 도심이 가려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보통 사람의 기질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로 서의 도심을 내기 힘들다. 즉, 인심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고, 극복을 위한 도심의 정도 또한 기질의 저항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기질은 마음 현상에서 올바른 마음을 이끌어내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질의 차이가 개인이 지닌 지식과 실천력의 능력 차이를 결정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¹⁵⁾ 그래서 울곡은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에 따라 도덕적 차등이 주어진다고 보고 ‘물과 그릇의 비유’를 통해 이를 밝히고 있다.

3. ‘물과 그릇의 비유’를 중심으로

3.1. 울곡의 인심 · 도심, ‘리의 본연’으로 답하다

울곡이 들고 있는 ‘물과 그릇의 비유’를 살펴보면 그가 생각하는 기질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이 비유를 들기에 앞서 그는 리와 기에 대한 논증을 하는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로써 비유의 설명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것은 기질지성이 본성이라는 전제이다.

이는 형이상자이고, 기는 형이하자로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 다만 리는 작위가 없고 기는 작위가 있기 때문에, 정이 본연지성에서 나와 형기에 가리우지 않는 것은 리에 속하고, 정이 당초에는 비록 본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형기가 가리워버린 것은 기에 속하니, 이것도 또한 부득이한 논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성이 본래 선한 것은 리지만, 기가 아니면 이는 발하지 아니하니, 인심 · 도심 그 어느 것이 리에서 근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발 때에도, 또한 인심의 싹이 심 속에 리와 상대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원은 하나로되 흐름이 둘이 된 것이니, 주자께

15) 정원재, 『이이의 본성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160.

서 어찌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다만 말씀을 하시어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각기 주안점을 두시는 것이 있으셨을 따름입니다.¹⁶⁾ (율곡 4서)

율곡은 먼저 리는 형이상자이고 기는 형이하자이며, 그렇기에 리는 작위가 없고 기에는 작위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본연지성에서 나와 형기에 가리지 않는 것은 리라고 주장한다. 또한 본연에서 나왔어도 형기가 가린 것을 기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 근거로 모든 것이 리에서 근원하지만, 결국 발하기 위해서는 기가 존재하기 때문임을 들고 있다. 근원은 리이되, 모든 발현은 기로부터 시작되므로 기에서 발하고, 리에서 발하는 식의 인심과 도심의 두 가지 짝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로부터 리발과 기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리에서 근원하고, 이것들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기에서 발하는 것만으로 가능함을 주장한다. 이는 기질이 어떻게 발하여 작용하는가에 따라 인심 · 도심이 나뉘는 뿐이지 사실상 모두 리에서 근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심 · 도심이 모두 리에서 근원함에도 불구하고, 도심은 선하고 인심은 악한 연유를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는 본성이 곧 기질지성이라는 논리를 들어 대응한다. 그런데 그것은 주희가 ‘성즉리’ 즉, 본성은 리라고 주창한 바와는 일치하지 않아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 기질지성은 리와 기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본성으로서의 리’와 ‘본연의 리’를 다르게 구분하여 설명하므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정자가 ‘사람이 태어남에 기품을 받음에 리에는 선 · 악이 있다.’고 했을 때의 ‘리’라는 것은 기를 타고서 ‘흘러가는 리’를 가리킨 것이지, 리의 본연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서¹⁷⁾ 그 점을 알 수 있다. 율곡 4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그 점이 나타난다.

16) 황준연 외, p.294.

17) 앞의 책, p.286.

인심·도심이란 이름을 쓴 것은 성인이 어찌 피할 수 있어서였겠습니까? 리의 본연은 본래 순수한 선인데 기를 타고서 발하여 작용할 때 선악이 나뉘어지니, 다만 기를 타고서 발하여 작용할 때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만을 볼 뿐 이의 본연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큰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만 그 이의 본연만을 볼 뿐 기를 타고서 발하여 작용할 때 혹 흘러서 악이 되는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도적을 아들로 아는 격입니다.¹⁸⁾ (율곡 4서)

율곡은 여기서 ‘리의 본연’이 본래 ‘순수한 선’이라는 표현을 쓴다. 주희에 따르면 본성이 곧 리이고, 그래서 본성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리’는 선하다고 하면 되었을 것을 왜 ‘리의 본연’이 선하다고 해야 했을까? 여기서 ‘리’와 ‘리의 본연’의 나눔은 곧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의 나눔을 의도한데서 온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주희는 ‘성즉리’ 즉, 본성은 ‘리’임을 그의 대명제로 말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리의 본연’이라는 개념을 추가한다면, 본성으로서의 ‘리’는 ‘리의 본연은 아닌 리’,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를 타고 있는 흘러가는 리’가 될 수 있다. ‘리의 본연’은 순수하고 선한 것이지만, 이제 ‘리’는 기질을 포함한 기질지성으로서 기에 의해 순수하고 선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본성이 곧 본연지성이라고 보는 입장일 경우 본성으로서의 ‘리’라는 개념에서의 ‘리’의 의미를 기질지성으로 바꿀 수 있는 ‘리의 본연’이라는 표현을 쓸 당위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율곡은 ‘리의 본연이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이 보는 본성은 기질지성임을 확고히 한다. 그리고 여기서 선악은 기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리의 본연’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없게 되어 리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구도가 형성된다.

그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본성이 기질지성에 가깝고, 리의 본연의 선함과는 다르게 기가 선악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보는 관점은 물과 그릇의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8) 앞의 책, p.295.

사물 중에서 그릇을 떠나지 못하며 쉬임없이 흘러가는 것은 오직 물이기에 그러므로 오직 물만이 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본래 맑은 것은 성이 본래 선한 것과 같으며, 그릇이 깨끗함과 더러움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질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릇이 움직이면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하면 리가 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릇과 물이 같이 움직여서 그릇이 움직이는 것과 물이 움직이는 것과의 구별이 없는 것은 리·기가 호발하는 것의 구별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릇이 움직이면 물은 반드시 움직이지만, 물이 스스로 움직인 적이 없는 것은 리는 작위함이 없고 기는 작위함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¹⁹⁾ (율곡 4서)

물을 성으로 비유하고, 그릇을 기질로 비유하게 될 경우, 우계가 언급한 ‘사람과 말의 예’에서와 달리, 본성으로서의 리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반면 기질의 역할은 매우 강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항준 또한 “그릇 은유”는 원천적으로 기에 대한 리의 통제를 설명하기에는 부적합²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람과 말의 예’에서 사람이 말을 주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녔다면, ‘물과 그릇의 예’에서 물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맑음 즉, 선함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릇이 움직여야만 물도 자신이 존재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즉, 물이 흐르는 것을 감정이 발하는 것으로 보는 이 비유에서, 물은 그릇이 스스로 작용하기 전까지는 흐를 수 없다. 물이 주재하여 그릇을 움직일 수는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기발리승지’만 남아있을 뿐 ‘리발기수지’는 이제 이 비유에서 불가능해 보인다. 이 비유에서 주희가 말한 본성은 선하긴 하지만, 더 이상 선함을 스스로 드러낼 수는 없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감정을 내는 본성은, 기질의 역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질지성이 되어 버릴 가능성에 노출된다.

19) 앞의 책, p.298.

20) 이항준, p.203.

3.2. 시작과 끝으로서의 인심 · 도심 그리고 수양론

율곡은 인심과 도심에 대해서 ‘물과 그릇의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인은 기질이 맑고 순수하여 성이 그 체를 온전케 하기에, 하나의 털끝만큼도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질이 발할 때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를지라도 법도를 넘지 않으니, 인심도 또한 도심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깨끗한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안에 한 점의 티끌도 없기 때문에,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본래 맑은 것이 기울어져 쏟아져 나와서, 흘러가는 것도 모두 맑은 물인 것과 같습니다.²¹⁾ (율곡 4서)

이 비유에서 율곡은 성인에 대해서 성명을 방해하는 성질을 지닌 기질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질이 발할 때 욕구대로 할지라도 법도를 넘지 않아 인심이 곧 도심이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생각해볼만한 점은 율곡의 도심에 의해 인심이 법도를 넘지 않을 경우 곧 도심이라는 사실이다. 기질의 성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과 몸의 욕구대로 행하려는 의식이 일치되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인심=도심’인 것이 아니라 인심에서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도심에 의해 좌우될 경우 도심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율곡이 사용하는 인심 · 도심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시작으로서의 인심, 도심과 끝으로서의 인심, 도심이 바로 그것이다. ‘시작으로서의 인심’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질의 호오대로 하려는 의식이고, 기질의 성향을 억제하여 성명에 따라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시작으로서의 도심’이다. 반면 끝으로서의 인심은 기질의 호오대로 하려는 의식이 그것을 억제하려는 의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을 말하고, 도심은 영향을 받아 교정된 상황을 말한다. 즉, 감정이 발한 상황과 의식이 작용한 후의 상황에 있어서 인심 · 도심의 표현을

21) 앞의 책, p.297.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시작은 의식이고, 끝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끝으로서의 도심, 즉, 인심이 도심에 의해 영향을 받아 교정된 상황은 인심이 ‘법도를 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 율곡에게 있어서 시작으로서의 도심은 기질을 성명대로 이끌리게 하는 의식인데, 이 ‘성명대로 이끄는 것’이 곧 법도, 즉 사회적 기준에 맞게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명’은 ‘법도에 맞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

성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 그는 어진 사람과 못난 사람으로 나누어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어진 사람은 기질이 비록 맑고 순수하긴 하더라도, 약간의 흐린 것이 섞여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양의 공부를 의지해야 하고 그런 후에야 본연지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질이 발할 때에 본연지성을 곧게 따라서 형기에 가리우지 아니한 것도 있고, 또한 비록 성에서 발하였더라도 형기가 작용한 것도 있는데, 형기가 비록 작용해도 인심이 도심에 의해 명을 듣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색을 탐하는 마음도 또한 규범을 따르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물을 담은 그릇이 비록 깨끗하더라도 약간의 티끌이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반드시 깨끗하게 하는 공을 들여야 하며, 그런 후에야 물이 그 본연지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릇이 움직일 때에 혹 맑은 물이 기울어져 흘러나와도 티끌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고 혹 맑은 물이 비록 흘러나왔더라도 티끌이 이미 움직인 것도 있어, 반드시 그 티끌을 가라앉혀서 맑은 물에 섞이지 않게 해야 하니, 그런 후에야 물이 흘러가면 맑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²²⁾ (율곡 4서)

여기서 어진 사람들은 성인에 비해 기질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 기질이 발해야만 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성에서 발하였더라도 형기가 작용한 것(형기가 작용한 성에서 발한 것)’라는 표현을 통해 여기서의 성으로 기질지성을 두고 있음을 알

22) 앞의 책, p.298.

수 있다. 울곡에게 있어 주희가 말한 리 즉, 본연지성은 스스로 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심이 도심의 명을 듣는 경우에 도심이 규범을 따른다고 하여 인심이 사회규범을 따르게 되었는지의 여부가 끝으로서의 도심을 결정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 비유에서 기질에 흠이 있는 것을 그릇에 약간의 티끌이 있어 물이 맑지 않게 된다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즉, 울곡이 감정이 발하는 데에 있어서 물이 깨끗한 지의 여부로 인심, 도심을 구분해 보았다는 점이다. 이 때 어진 사람의 경우, 물을 흐르게 할 경우(감정이 드러난 경우) 대개 깨끗하게 흘러가므로 도심(끝으로서의 도심)이 대부분인데, 티끌이 함께 흘러가게 될 경우 인심(끝으로서의 인심)이다. 티끌을 가라앉혀 맑은 물에 섞이지 않게 하는 과정은 그에게 있어 ‘수양’이다. 비유에서 ‘결론으로서의 인심·도심’은 볼 수 있으나 정작 기질을 제어하는 ‘시작으로서의 인심·도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 까닭은 본 비유에서의 강조점은 기질지성에서 기질이 발해야만 본성 역시 나타나고, 기질의 순수함 여부에 따라 인심·도심이 결정된다는 점이기 때문일 수 있다.

못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못난 사람은 기질이 흐린 것이 많고 맑은 것이 적으며, 섞인 것이 많고 순수한 것이 적어서, 성이 이미 그 본연을 어지럽혀버렸고 또한 수양하는 공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질이 발할 때에 형기에 부림을 당하는 게 많아지는데, 이것은 인심이 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간이 인심사이에 도심이 섞여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살피고 지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형기의 사사로움에 전적으로 맡겨져서, 정이 우세하고 욕구가 강해질 경우에는 도심도 또한 인심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물을 담은 그릇이 더럽고 깨끗하지 않아 진흙찌꺼가 그 안에 가득하여, 물이 그 본연의 맑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깨끗하게 하는 노력도 없기 때문에, 그릇이 움직일 때에 진흙찌꺼가 물을 흐리게 하여 흘러나오니, 그것이 맑은 물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며, 간혹 진흙찌꺼가 흐리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언뜻언뜻 맑은 물이 잠시 흘러나왔다가도, 갑자기 진흙찌꺼가 다시 흐리게 하기 때문에 맑은 것이 도

로 흐려져버려, 흘러가는 것이 모두 흐린 물인 것과도 같습니다.²³⁾ (울곡 4서)

마찬가지로 못난 사람은 기질의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더욱이나 커서 진흙찌꺼기로 표현된다. 못난 사람의 인심·도심 비유에서 살펴볼 점은 1)인심 사이에 도심이 섞여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살피고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는 점, 2)욕구가 강해질 경우에는 도심도 또한 인심이 된다는 점, 3)성이 이미 그 본연을 어지럽혀 버렸다는 점이다. 1)의 인심과 도심은 시작으로서의 인심·도심이다. 그런데 못난 사람들은 몸의 욕구대로 의식하려 할 때, 그것을 억제하려는 도심도 또한 나타나지만 그것을 살피고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 즉, 억제하여 사회적 기준에 맞게끔 하려는 의식이 들지만 그것이 왜 나타났는지 고찰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의식이 들게 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2)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심조차 인심이 될 수 있다. 억제하려는 마음이 나타났기에 도심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인심이 영향 받지 않으므로 끝으로의 인심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인심·도심은 인심이 도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의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3)에서 ‘성이 그 본연을 어지럽혀’버렸다는 표현 또한 흥미롭다. ‘성’은 이미 본성으로서 선행야 하는데, 어지럽히는 주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울곡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본성을 기질지성으로 보려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표현인 것이다. 기질지성의 기질이 본연을 어지럽히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 어지럽힘도 기가 발한 후에야 가능한데, 울곡은 기발 후 함께 흘러가는 리는 어지럽혀질 수 있어도, ‘본연의 리’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흙찌꺼기가 그 안에 가득하여, 물이 그 본연의 맑음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에서 ‘본연’이 ‘본연의 리’라면, 기질이 순수하지 않으면 본연조차 더럽혀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게 되는 것이다. 기질지성으로서의 본성을 주장하기 위해, 기에 의해 발해진 리와 선행 본연 상태의 미발의 리를 울곡은 구분하였다고 전술하였다. 그런데 비유에서도

23) 앞의 책, p.299.

나타나듯이 기질이 강하면 이 본연마저 ‘어지럽혀’버릴 수 있고, 흐리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서 본성으로서의 리는 더욱 무력하고 기질의 영향은 강력해짐을 볼 수 있다. 본성으로서의 리는 비유를 통해 이제 미발에서의 선험이 담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질지성에 의해 나타나야할 본연의 맑음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도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서도 기질의 강한 영향력과 상대적으로 약한 리의 영향력이 이 비유에서는 암시된다.

실제로 본성으로서의 리와 기질에 대한 우계·율곡의 관점은 그들의 리와 기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에서 근거한다. 그리고 이러한 리기론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에도 분명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버드나무 물가 비유’를 통해서 그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4. ‘버드나무 물가 비유’를 중심으로 - 리·기의 층위적 구조 차이

따로 적어 덧붙인 종이에서 우계는 리·기에 대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비유로서 논하고 있다.

어제 버드나무 물가에 나가서 손으로 물살을 막으면서 생각하기를,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리이며, 막아서 손에 튀어오르게 한 것은 기의 작용이다. 그렇다면 기에는 작용할 때가 있고, 호발할 때가 있는 것인가? 이 아무개가 한 짓은 죄가 크기도 하고 악이 극에 달했는데도, 끝까지 머리를 보존했다. 하늘의 도는 지각이 없으니, 이것도 또한 기의 작용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또다시 생각하기를 “만일 기의 작용하는 것이 애초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리가 없이도 주재가 된다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와 달이 빛이 없어지고 하늘이 떨어지고 땅이 꺼진지가 오래되었을 것이니, 어찌 그릇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습니다.²⁴⁾ (우계 4서)

24) 앞의 책, p.292.

우계에게 있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이 ‘리’이고, ‘막아서 튀어오르게 한 것’이 ‘기’이다. ‘물과 그릇의 예’에서 나온 물과 달리 흐르는 물을 생각하고 있는 그는 리의 유위함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다. 그러다가 리의 흐름을 간혹 막는 ‘기’가 있다고 본다. 흐르는 강물과 그것을 방해하는 나의 손은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리가 흐르는 것과 기가 발하여 작용하는 것은 호발한 것이 된다. 또한 이 때가 생각하는 ‘기’는 리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이다. 그는 자신이 손으로 강물의 흐름을 막은 것이, 리가 없이도 기가 작용할 때가 되어서 기가 방해한 것이며, 당시 이량이 명종의 충애를 빙자하여 악한 일을 일삼았는데도 머리를 보존한 바를 보면 ‘리의 주재’없이 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경우 세상이 훨씬 더 어지러운 것인데 그렇지 않은 않다고 보며, 기가 주재하더라도 악한 일만 있지는 않음을 다시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그에게 있어서 기는 리를 ‘방해할 수 있는 기’이다. 그리고 선을 위해서 ‘리의 주재’는 필요하다.

울곡에게 있어서는 리 · 기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버드나무 물가에서 물살을 막으셨다는 이야기는 사물을 보시고서 도를 생각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미진하신 데가 있습니다. 대저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리이며, 물살을 막아서 손에 튀어오르게 하는 것도 역시 리입니다. 물이 만일 언제나 아래로 흘러가기만 하고, 비록 막더라도 튀어오르지 않는다면 리가 없는 것이 됩니다. 물살을 막아서 손에 튀어오르게 한 것은 비록 기라 하더라도, 물살을 막아서 손에 튀어오르게 하도록 한 소이는 리인 것이니, 어찌 기만이 홀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본연의 리이며, 막아서 손에 튀어오르게 한 것은 기를 탄 리입니다.

기를 탄 것의 밖에서 본연을 구하는 것은 본래 옳지 않으며, 만일 기를 탄 것으로써 정상에 어긋나는 것을 보고서 마침내 기만이 홀로 작용하며 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아무개가 집에서 늙어 죽은 것은 진실로 정상에 어긋나지만, 다스리는 도가 공평하지 않아 상 · 벌에 규칙이 없으면, 악한 사람이 뜻을 얻고 선한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이 본래 그 이

치인 것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작은 것이 큰 것에 부림을 당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부림을 당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 세가 이와 같으면 리도 또한 이와 같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개 사람이 머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리의 본연이 아니라고 하면 옳지만, 기가 홀로한 것이며 리는 없다고 하면 옳지 않습니다.²⁵⁾ (울곡 4서)

울곡에게 있어서는 우계와 달리 물살을 막아서 손에 튀어오르게 하는 것도 ‘기’이자 ‘리’라고 볼 수 있다. 언제나 기가 발하여 작용하여야 하는 동시에, 언제나 리가 올라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손에 튀어오르게 하도록 한 소이는 리라고 말하며 동시에 기가 작용하였기에 물살을 막은 것임을 설명한다. 모든 활동에는 기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리는 소이로서 다른 표현으로서는, 자연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우계가 언급한 이량에 대해서도, 그가 벌을 받지 않고 평안히 늙어 죽은 것은 정상에 어긋남을 인정하지만 악한 사람이 뜻을 얻고 선한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도 다스리는 도에 의거한 ‘하늘의 이치’라고 설명한다. 즉, 형세가 그러하면 리도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라는 것이다. 리가 작용하는데도 악한 이유는, 기에 근거한 그 쓰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울곡은 리의 본연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한 악한 일들에도 리가 작용하지만 리의 본연은 아니고, 기가 그 악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기만이 작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세상과 사람의 심성을 바라보는 우계의 관점과 울곡이 지닌 관점이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 리·기의 이해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리의 흐름을 기가 방해로 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 우계라면, ‘방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모든 현상에서 기의 ‘매개’에 더 초점을 두었던 것이 울곡이었던 것이다. 물론 울곡은 기가 리의 본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홀로한 것’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

25) 앞의 책, p.303.

다고 하며 ‘매개’로서의 기의 기능을 더욱 강조한다.

이는 본고에서 한정하는 비단 우계·율곡 4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이어지는 답신들과 율곡의 ‘리기지묘’ 주장에까지 이어져 리·기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번지게 된다. 사실 이러한 리·기에 대한 이해에서의 차이가 우계와 율곡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해결지점을 찾기 쉽지 않았던 데 기여했을 바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성리학이 원래 자연법 사상으로서 ‘자연의 법칙 = 인간의 법칙’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자연히 존재론의 리·기 개념을 가지고 윤리도덕의 문제를 논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상대적 개념이 아닌 리·기를 가치에 있어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여 무리가 생겼을 수도 있다. 우계의 리기론이 리와 기의 가치를 상대하여 보는 ‘가치 상대 명제’라면, 율곡의 리기론은 현상의 설명에 더 초점을 두는 ‘사실 명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²⁶⁾ 결국 우계·율곡이 리·기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지 ‘버드나무 물가의 물살을 막은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기에, 이를 통해 그들의 심성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도 다를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리·기를 상대하여 선과 악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더 초점을 두었던 우계는 도덕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임에 비해, 리·기를 형이상·형이하의 존재로 보아 자연적 설명에 더 초점을 두었던 율곡은 그 현실적 쓰임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지도 모른다.

5. 나가며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과 말의 비유, 물과 그릇의 비유 그리고 버드나무 물가에서 물살을 막은 비유는 우계·율곡의 논쟁에 있어서 핵심적 비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논지를 효과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먼저 사람과 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계는 1)퇴계의 호발

26) 이동희, 「우계 성리설의 특성과 사상사적 의의」,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97, p.290.

설을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나 퇴계가 뿌리부터 다른 사단·칠정의 근원을 주장했다면, 그는 말하는 ‘그 시점’에서의 나뉘를 호발설로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이 비유가 인심·도심에 잘 적용되는지 모르겠다고 율곡에게 질문하는 부분이 사실은 율곡의 인심·도심 설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우계는 사단·칠정의 나뉘와 도심·인심의 나뉘를 같게 보았지만, 율곡은 그 나뉘이 달랐는데, 도심은 곧 선이지만, 인심은 악을 의미하기 때문일 수 있었다. 우계는 결국 인심이란 몸에서 근원하였으나 그 몸의 욕구도 하늘에서 기원한 것이고, 그러므로 방해자로서 기가 작용하는 때에만 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율곡은 결과적으로 선과 악의 구도를 먼저 생각하고 인심과 도심을 할당하는 것처럼 우계에게 보였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율곡은 이에 대해 인심에 대해서 성인과 보통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보통사람에게 있어서는 몸의 욕구가 모두 악으로 흐르게 만든다고 답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물과 그릇의 비유에서는 율곡이 본성이 말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선 이를 위해 기질지성이 곧 본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그는 입증하는데, 바로 ‘본연의 리’라는 개념을 넣고, 정자가 ‘리도 선·악이 있다’고 말한 바로 이를 뒷받침하여 ‘성즉리’의 리가 기질에 둘러싸인 상태가 본성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리고 동시에 ‘본연의 리’는 맑지만 그릇에 의해서 그 맑음의 흐름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질의 영향력은 아주 강하게 평가한 반면, 주희가 말한 본성으로서의 리는 그에 끌려다니는 무위의 것이 될 가능성에 노출시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버드나무 물가에서 물살을 막은 비유는 우계와 율곡이 견해가 나뉘어지는 또 다른 지점이 리·기에 대한 인식에서임을 보여준다. 우계에 있어서 기가 말하는 것은 리의 방해자가 말하는 것으로 리와 기는 상대적인 입지를 지니는 반면에, 율곡에게 있어서 기와 리는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에서 기가 작용하는 것이며, 그 소이는 리에 있다고 본다. 즉, 자연현상에서의 현상을 설명하는 ‘사실명제’로서 리와 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논문

- 이동희, 「우계 성리설의 특성과 사상사적 의의」, 대구: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97.
- 이향준, 「인승마 은유의 형성과 변형 1」, 『철학』 79집, 한국철학회, 2004.
- _____, 「인승마 은유의 형성과 변형 2」, 『동양철학』 27집, 동양철학회, 2007.
- _____, 「말타기에 대하여: 인승마 은유와 이이의 리」, 『범한철학』 50집, 범한철학회, 2008.
- _____, 「구석진 여백」, 『범한철학』 53집, 범한철학회, 2009.
- 정원재, 『철학사상 vol.13』, 「이이의 본성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국내 단행본

- 김세곤, 『퇴계와 고봉, 소통하다』, 온새미로, 2012.
- 배종호, 『한국유학사』, 연세대 출판부, 1990.
- 사라알란, 오만준 옮김,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예문서원, 1999.
- 송석구, 『율곡의 철학사상 연구』, 형설출판사, 1987.
- 송영배 · 금장배 외, 『한국 유학과 리기 철학』, 예문서원, 2000.
- 윤사순, 『퇴계철학의 연구』, 고려대 출판부, 1993.
- 이종열, 『비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2003.
- 채무송, 『퇴계 · 율곡철학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1985.
- 이향준, 『조선의 유학자들, 켄타우로스를 상상하며 이와 기를 논하다』, 예문서원, 2011.
- 황준연, 『이이철학연구』, 전남대 출판부, 1989.
- 황준연 외, 『역주 사단칠정논쟁』, 學古房, 2009.

